

‘손흥민 1골 2도움’ 흥명보호 첫 승

흥명보호가 오만을 누르고 천신만고 끝에 첫 승을 신고했다.

흥명보호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대표팀은 10일(한국시간) 오후 11시 오만 무스카트의 술탄카부스 경기장에서 열린 2026 국제 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조 2차전 오만과의 원정 경기에서 3-1로 승리했다.

지난 5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치른 팔레스타인과의 1차전 홈 경기에서 0-0으로 비긴 한국은 오만을 잡고 첫 승에 성공했다.

이로써 한국은 3차 예선 첫 두 경기를 1승 1무(승점 4 골 득실 +1)로 마치며 B조 2위로 올라섰다.

한국은 내달 10일 요르단과 3차전 원정 경기, 15일 이라크와 4차전 홈 경기를 이어간다.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과 팔레스타인전 졸전으로 비방 끝에 물러났던 흥 감독은 오만 원정에서 값진 승리를 거두며 한숨을 돌렸다.

10년 만에 대표팀 지휘봉을 다시 잡은 흥 감독은 2014년 3월 그리스전(2-0 승) 이후 10년 6개월 만에 A매치 승리를 맛봤다.

FIFA 랭킹 76위인 오만과의 상대 전적은 5승 1패가 됐다.

2003년 10월 오만 무스카트에서 열렸던 아시안컵 예선에서 3-1 승리를 거뒀던 오만은 한국에 2차 오만 쇼크를 자신했으나, 지난 이라크

황희찬 흥명보호 1호골...주민규 썬기골 3차 예선 첫 두 경기서 ‘1승 1무’ 마무리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

전(0-1 패)에 이어 2연패(승점 1을 당하며 조 최하위에 머물렀다.

1986년 멕시코 대회부터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월드컵 본선 무대에 오른 한국 축구가 북중미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면 월드컵 본선 진출 기록이 11회로 늘어났다. 한국은 이 부문 아시아 최다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18개국이 3개 조로 나뉘어 치르는 3차 예선에서 아시아에 배정된 85장의 본선 진출권 중 6장이 결정된다.

각 조 1~2위가 월드컵 본선에 직행하고 3~4위는 2장의 티켓을 놓고 맞붙는 4차 예선으로 향한다. 5~6위는 탈락한다.

한국은 팔레스타인, 오만, 요르단, 쿠웨이트, 이라크와 B조에서 경쟁한다. 흥 감독은 오만을 상대로 선발 명단에 대대적인 변화를 줬다. 팔레스타인전과 비교하면 무려 5명을 바꿨다.

경기를 주도한 한국은 전반 10분 황희찬의 베팅같은 오른발 슈팅으로

균형을 깬다. 손흥민이 짧게 내준 패스를 받아 상대 페널티박스 외곽 정면에서 골문 구석을 갈랐다.

지난 팔레스타인전에서 교체로 뛰었던 황희찬은 첫 선발로 나서서 흥명보호에 첫 골을 안겼다. 아시아 3차 예선 두 경기 만에 터진 한국의 첫 득점이기도 하다.

전반 중반이 지나면서 오만이 공격의 강도를 높이기 시작했다. 분위기를 탄 오만은 전반 47분 동점골에 성공했다. 하리브 알사디가 올린 프리킥 슈팅이 골로 수비수 정승현의 자책골로 이어졌다.

손흥민은 후반 37분 이강인과 이대일 패스를 주고받은 뒤 수비수를 제치고 왼발 슈팅으로 결승골을 터트렸다. A매치 129번째 경기에서 터진 49호골이다.

A매치 개인 최다 득점 2위인 황선홍 대전하나시터즌 감독(50골)과는 한 골 차다.

후반 추가시간이 무려 16분이나 주어진 가운데 한국은 후반 56분 손흥민의 패스를 주민규가 오른발 논스톱 슈팅으로 차 넣으며 3-1 승리에 썬기를 베풀었다.

손흥민은 오만을 상대로 결승골을 포함해 1골 2도움을 올리며 흥명보호 첫 승에 앞장섰다.

한편 월드컵 3차 예선 첫 두 경기를 마친 흥명보호는 12일 오후 인천 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다. /뉴스



2025 KBO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 신인들 11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2025 KBO 신인 드래프트'가 열렸다. 사진 왼쪽 왼쪽부터 이날 1라운드 지명된 키움 정현우(덕수고), 한화 정우주(전주고), 삼성 배찬승(대구고), 롯데 김태현(광주제일고), KIA 김태형(덕수고), 아랫줄 왼쪽부터 두산 박준순(덕수고), 키움 김서준(충훈고), SSG 이윤재(강릉고), kt 김동현(서울고), LG 김영우(서울고). /뉴스

손준호 “중국 공안 압박에 거짓 자백해”

승부 조작 혐의 중국축구협회로부터 영구 제명



중국축구협회로부터 영구 제명 징계를 받은 축구선수 손준호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손준호는 이날 오후 수원시체육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국 공안에 체포될 당시 당황스러웠다. 가족들 앞에서 체포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며 “영문도 모른 채 어디로 나를 끌고 갔는데 구치소였다. 혐의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너의 아내가 외교부를 통해 체포돼 초양 구치소로 같이 잡혀 가야 한다고 겁을 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안이 지금이라도 혐의를 인정하면 빠르게 10일에서 15일 뒤에 나갈 수 있다. 보석도 가능하다”고 회유했다며 “무엇인지도 모르는 혐의에도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말에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3주 후 가족들이 고향한 변

호사와 처음으로 접견했지만 변호사는 왜 잘못도 없는데 혐의를 인정했냐며 진술을 반복하라고 조언했다”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바보 같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진술을 반복하자 중국은 강도 높은 조사를 다시 진행했고, 제가 무혐의를 주장하자 터무니없는 증거를 가지고 와 압박했다”며 “수개월 동안 단 몇 번의 조사밖에 받지 않았다. 수사 과정 영상과 음성 파일을 변호사에게 보여달라고 신청했지만 공안은 음성 파일이 없다는 답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축구협회는 지난 10일 중국체육총국, 공안부와 기자회견을 열고 손준호를 포함해 산둥 타이산과 선양 흥원, 장쑤 쑤닝, 상하이 선화 등에서 뛰었던 선수 44명에게 영구 제명 징계를 내렸고, 17명에게는 5년 자격 정지 징계를 각각 내렸다.

전남드래곤즈, 추석연휴 부산과 홈경기...승점3점 정조준

15일 30라운드 경기... ‘구레군의 날’ 네이밍 데이



전남드래곤즈(전남)가 부산아이파크(부산)과의 홈경기에서 승점 3점을 정조준한다.

전남은 15일 오후 4시 30분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부산을 홈으로 불

러려 K리그2 30라운드 경기를 치른다. 현재 승점 43점(12승 7무 8패)으로 K리그2 2위를 기록 중인 전남은 추석연휴 고향을 찾는 홈팬들 앞에서 반드시 승점 3점을 확보해

밀까지 올라온 팀들의 추격을 따돌리겠다는 각오다.

전남이 상대할 부산은 승점 39점(11승 6무 10패)으로 K리그2 6위를 기록하고 있다.

양 팀의 최근 5경기 맞대결에선 2승 1무 2패로 동등한 결과를 보이고 있지만 통산 전적에서는 전남 38승 부산 30승 21무로 전남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 전남은 남은 9경기에서 목표인 승적을 향해 사활을 걸겠다는 각오다.

이날 경기는 ‘구레군의 날’ 네이밍 데이가 진행된다. 구레군 우리밀 선물세트를 경품추첨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며 음악 방송 크리에이터 이승민이 방문해 하프타임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광양=조준익 기자

순천시청 직장운동부 소프트테니스·양궁 은메달

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이 제 17회 안성세계소프트테니스 선수권대회와 올림픽체재기념 제 41회 회장기 대학·실업양궁대회에서 나란히 은메달을 차지했다.

소프트테니스팀은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경기도 안성에서 국제소프트테니스연맹(ISTF) 주최로 열린 제 17회 안성세계소프트테니스 선수권대회에서 추문수 선수가 김진웅 선수(수원시청)와 남자 복식 결승에서 대만팀을 상대로 4대5로 아쉽게 패하며 은메달을 획득했다.

또한, 양궁팀은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강원도 원주에서 제 41회 회장기 대학·실업양궁대회에서 남수현 선수는 여자 일반부 30m 경기에서 358점을 쏴며 은메달을 차지했다.

전국 최대 규모 2000평 스포츠센터 상무지구 **파라드시티** QED골프

Fitness ☑️ 광주유일 실내 100m트랙
☑️ 시 디렉스핏

1:1PT ☑️ 개인PT룸
☑️ 스트레칭존

Tennis ☑️ 스크린 연습장
☑️ 실내 정식 코트
☑️ 실외 코트 가능

Golf ☑️ 1000평 규모
☑️ 31타석

평일 06시~24시 / 주말 08시~22시 / 매월 마지막주 일요일 휴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64 영무에다음 상가 2,3층 파라드시티(광주CGV 건너편)
문의 062 374 0088

1000평 규모 31타석 및 좌타 2개 타석 보유
‘예술과 함께하는 이색적인 골프연습장’